

다음 날 저녁 6시, 레이냥은 생앙투안 지역에 있는 술랑주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혹시라도 그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는 갔다, 왔다, 또 기다렸다. 이웃들이 그를 수상한 인물로 여길지도 모르는데 ... 심지어 절도를 대비해 장소를 답사하는 도둑으로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조금 호기심 많은 ... 미친놈이라고 ... 음, 그래, 난 그녀에게 미쳤어. 아! 그녀의 집! 철문이 열려 있다. 안뜰에는 나무가 있고, 나뭇가지, 나뭇잎, 그리고 빛이 보인다. 아니, 여긴 그녀의 집이 아니다. 오직 나만이 그녀의 집이다. 나는 그녀를 들어마시고, 그녀는 내 안에 있다. 잠깐이라도 이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 그녀를 볼 수 있다면 ...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

— 거기 누구 있어요?

레이냥은 어느새 벽돌로 된 복도로 통하는 현관문을 소심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자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고, 그에게 거실에 앉으라고 권유한 후 술랑주의 어머니에게 손님의 방문을 알리러 갔다.

레이냥은 집을 한눈에 빠르게 둘러본 후 벽에 걸려 있는 직사각형 거울 바로 맞은편에 놓인 천으로 덮인 의자에 앉았다. 거기에 앉으면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세를 점검하고, 움직임은 주시할 수 있었다. 행동주의를 가르치는 어느 심리학 교수가 몸짓이 정신세계의 비밀을 드러낸다고 말한 것이 떠올랐다. 레이냥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네모난 이마와 두꺼운 눈썹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리를 살짝 올리면 더 예뻐 보일 것 같았다.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 작아 보였다. 코는 넓고 납작했고, 크게 열린 콧구멍은 마치 황소를 연상케 했다. 맵소사! 내가 좀 못생겼나? 설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얼굴을 가졌나? 술랑주의 부모는 꽤 잘 사는 듯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우아한 집 ... 근사한 거실에 TV와 스테레오까지... 내가 그곳에서 살아야겠다. 그 집에 자리 잡을 것이다. 거기에 머물 테다. 예로부터 구르는 ‘심장’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을 곧 내 처가로 맞이할 것이다. 하! 그들이 다가온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 안녕하십니까?

젊어 보이는 솔랑주의 어머니와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녀의 남편이 레이낭의 오른편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 저는 레이낭이라고 합니다.

— 아!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딸이 당신 얘기를 하더군요.

— 정말입니까?

—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게 했네요. 늦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 아닙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인 걸요. 방문을 미리 경고 ... 아! 아니 ... 알렸어야 했는데 ... 이건 정말 제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 어찌 됐든 레이낭 씨,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와주셔서 기쁩니다.

— 정말 고맙습니다.

— 솔랑주가 당신을 극찬해서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 저에 대해 너무 과장하지는 않았기를 바라네요.

— 우리 딸이 과장하거나 착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낭 씨.

솔랑주의 어머니인 로지는 실례한다는 말과 함께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두 남자는 모든 주제의 뉴스를 마구잡이로 논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마디로 정보의 결투장이 되었다. 잘난 척과 현학, 휘황찬란한 문장과 희귀한 어휘, 학문적인 용어, 라틴어 인용구, 신문 기사, 영화 제목, 배우 이름 등이 총알처럼 빗발치며 상식을 몰살하고 순수이성을 무너뜨렸다. 레이낭은 처음부터 이 자리는 곧 상대방을 완전히 이겨야만 명예를 지킬 수 있는 펜싱 시합과 같다는 것을 알아챘다. 거실은 곧바로 허풍쟁이 검투사들이 공허한 말들의 돌풍 속에서 격돌하는 진정한 투기장으로 변모했다. 마치 가짜 가시로 무장한 수탉들의 싸움 같았다. 그러나 레이낭은 불리하게도 관중이 아닌 콜로세움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선수로 참가한 것이다. 머리 위에 100와트짜리 전구가 빛났다. 그는 땀을 흘렸다. 땀이 관자놀이에서 빠른 속도로 흘러내렸다. 당연히 베트남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영국은 까다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물가 상승의 폐해와 미국 달러의 취약성에 대한 어리석은 분석을 쏟아내게 만들었다. 제3세계 국가들은 서로 대립하는 두 거대 블록의 적대감을 백번 활용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를 넘나들어야 하며, 이는 곧 극단적인 진영을 연결하고 20세기의 이념을 조율하는 제3의 길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남아프리카의 크리스천 버나드 박사는 놀라운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으며, 러시아와 미국의 로켓이 달에 착륙했다. 레이닝과 솔랑주의 아버지 사이에는 치열한 언쟁이 오갔다. 공격과 반박이 더욱 거세졌다. 레이닝은 식은땀을 흘렸다.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거울을 보며 침착하게 얼굴을 닦았다.

로지가 작은 칵테일 잔 세 개가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레이닝에게 먼저 칵테일을 건넸다. 그는 평소라면 럼주 한 잔을 더 선호했겠지만, 향기로운 분홍빛 액체를 바로 마시기 시작했다. 그 맛에 반한 척했다. 에탄올에 익숙한 그의 큰 입은 고통스러울만큼 달콤한 음료를 용감하게 건넰다. 그는 잔을 비우는 데 필요 이상의 시간을 들였다. 뜻밖의 휴식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피곤한 지적 겨루기의 교전수칙은 물론, 그에 따르는 우회, 함정, 지옥 같은 여정의 조건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대결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도 짐작했다.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핵심 쟁점은 아직 다루지조차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승리나 최소한 무승부를 거둬야 했다. 그는 자신에게 큰 타격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30분 동안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표정은 그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솔랑주에 대해 묻지 않았다. 좋은 선수는 약점을 숨기고 자신의 무기를 믿어야 한다고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미 링 위에 올랐다. 도전에 맞서야 했다. 그 순간, 재개의 징이 갑자기 울리면서 정적이 깨졌다. 적은 적절하면서도 능수능란한 질문들로 그를 괴롭혔다.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때로는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탈출구가 없는 궁지에 몰린 레이닝은 모든 교전수칙과 기사도의 원칙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일격에 일격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다. 절대 투항해서는 안 된다. 절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솔랑주의 아버지는 빈 잔을 내려놓고 대화 상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 레이닝 씨, 법과 경제학을 공부한다고요?

— 네, 맞습니다.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 일상적인 활동 외에도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 물론 일은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하죠. 과량의 업무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이 그런 것이겠죠? 휴식은 죽은 후에나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 나중에 돌이켜보면 분명 피와 살이 되는 경험이었다고 느낄 거예요. 젊을 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레이냥 씨는 하루 종일 일하시나요?

— 아니요, 하루 종일 일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만 일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중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계속 국내에 머물 계획인가요?

— 아니요. 취업이 확실시되는 캐나다로 갈 계획입니다. 제 친구가 거기에서 첫발을 내딛고 있는데, 한 달에 2천 달러는 쉽게 벌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더군요.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레이냥은 상대에게 거짓말과 위조지폐를 한 가득 쏟아붓고 나서야 이 대결에서 승리했음을 확신했다. 그는 부끄러웠다. 약간 수치스러웠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자존감이 위축되었다. 금지된 무기를 사용해 반칙으로 이기고 말았다. 그야말로 영광 없는 전투. 거짓 승리. 서커스에서의 광대들의 충돌을 보고 나온 것만 같은 환멸. 관자놀이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눈부신 백 와트 전구가 정수리 위에 빛났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크게 웃고 싶었다. 목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웃고 싶었다. 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웃고 싶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폭발하고 싶었다. 수천 개의 작은 살점들로 터져버리고 싶었다. 튀는 피, 납작한 덩어리, 탱크 밑에 짓밟힌 애벌레가 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을 맞이해준 호스트들에게 손을 내밀며 술량주에게 안부를 부탁했다. 위층에 있던 그녀는 계단을 사뿐히 내려와 거실로 들어왔고, 눈에 띄게 겁에 질린 채로 작은 철문으로 다시 안내되고 있는 친구를 맞이했다.

레이냥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는 1분도 허비하지 않고 지인을 만나고 싶었다. 자신과 친밀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불쾌하고 소외감을 주는 죄수복을 벗고 싶었다. 허위의 진흙을 털어내고 싶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거의 뛰고 싶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한 모금 씩 빨아들일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진실을 말해야 해. 친구와 이야기를 해야 해. 나는 학생도, 그 어떤 과목의 교사도 아니며, 그 어디로 여행갈 계획도 없다는 사실을 모든 길거리에서 공표해야 해. 하지만 이 모든 거짓

말을 원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어. 만약 내가 만년 실업자라고 밝혔더라면, 그들은 내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내 말을 듣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내가 해외로 떠날 계획과 캐나다에서 받을 2천 달러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미소를 지었어. 그 순진한 노인은 콧수염을 비비꼬며 나를 흘깃 옆으로 바라보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

레이낭은 집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이웃집에 들이닥쳤다.

거기에서 레이낭은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이런 기괴한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광인처럼 웃었다. 배를 움켜쥐었다. 허리띠를 풀었다. 비좁은 철제 침대에 몸을 던졌다. 매트리스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바닥에 쓰러졌다.

그럼에도 레이낭은 일어나서 계속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이미 자러 간 아이들을 잠에서 깨웠다. 아무도 한참동안 이어진 그의 웃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분 후, 웃음소리는 이상하게도 짧은 호흡과 굵은 소리를 번갈아 가며 변했다. 그의 가슴은 경련을 일으켰다. 마치 우주복을 입고 질식하는 것만 같았다. 강철 잠수복을 입은 느낌이었다. 그는 문어들이 가슴을 짹조이고 있는 공간에서 질식하는 기분이었다. 폐는 철제 죄수복에 끼어 있었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아픈 정신과 불안정한 심장,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심각한 소외감으로 인해 정신과 영혼이 흐트러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기회나 용기를 갖지 못한 채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Le lendemain, dès six heures du soir, Raynard était dans la zone de Saint-Antoine, rôdant près de la maison de Solange, épiant son apparition.

Il allait. Venait. Guettait. Ne se souciant même pas de passer, aux yeux des gens du quartier, pour un dangereux suspect, un voleur peut-être... en train d'inspecter minutieusement les lieux en vue d'un éventuel cambriolage. Que pourraient supposer les gens du quartier? Tout simplement que je suis un curieux ... Un fou... Oui, je suis fou d'elle. Ah! sa maison! La barrière est ouverte, en fer forgé. Dans la cour, un arbre. Des branches. Des feuilles. De la lumière. Non ce n'est point sa demeure. Je suis moi-même sa demeure. Je la respire. Elle est en moi. Entrer chez elle, une toute petite minute. La voir. Lui parler...

— Il n'y a personne ?

Et Raynard frappait déjà timidement à la porte d'entrée qui donne sur la galerie pavée de briques. Une fillette vint lui ouvrir, l'invita à s'asseoir au salon et alla prévenir la mère de Solange de sa visite.

Raynard embrassa l'intérieur de la maison d'un coup d'oeil circulaire. S'enfonça dans une chaise rembourrée, placée juste en face d'un miroir rectangulaire accroché au mur. Ainsi il va pouvoir se regarder de temps en temps. Contrôler sa posture. Surveiller ses gestes. Le professeur de psychologie, traitant du behaviorisme, avait bien dit que la tenue corporelle livrait certains secrets du psychisme. Il se regardait dans le miroir. Je ne suis pas mal avec mon front carré et mes sourcils épais. Mais je serais mieux avec un pompon de cheveux. On dirait que j'ai l'oeil gauche plus petit que l'oeil droit. Mon nez est large, aplati à la base, avec des narines ouvertes qui rappellent celles d'un boeuf. Bon Dieu ! Serais-je un peu laid ? Aurais-je une tête à ne pas plaire? Les parents de Solange semblent si aisés. La maison la plus élégante du quartier... Un joli salon. Un appareil de télé. Un stéréo. J'y prendrai domicile. Je m'installerai dans la famille. J'y resterai. Coeur qui roule n'amasse pas mousse. Je vivrai avec mes beaux parents. Ha ! Je les vois qui arrivent.

— Bonsoir, monsieur.

— Bonsoir.

La mère de Solange, une jeune dame, et son mari, un peu plus âgé, prirent place sur le canapé à droite de Raynard.

— Je suis Monsieur Raynard.

— Ha! Bon. Solange nous a parlé de vous.

— Vraiment?

— Nous vous avons fait attendre. Vous voudrez bien excuser notre retard.

— Mais non! C'est moi qui dois m'excuser auprès de vous. J'aurais dû annoncer ma visite....

Heu! enfin... vous avertir. C'est une impardonnable maladresse de ma part.

— Tout de même, Monsieur Raynard, ça n'a aucune importance. Au contraire, nous sommes contents que vous soyez venu.

— Alors merci.

— Solange nous a parlé de vous en termes si flatteurs que nous désirions vous connaître.

— Je souhaite qu'elle n'ait en rien exagéré en ma faveur.

— Je ne crois pas qu'elle eût exagéré, ni qu'elle se fût trompée, Monsieur Raynard.

Rosie, la mère de Solange, s'était retirée en s'excusant. Entre-temps, les deux hommes poursuivaient à batons rompus la conversation, passant en revue tous les sujets d'actualité. C'était un véritable duel d'informations où, par fatuité et pédantisme des deux côtés, les expressions les plus sophistiquées, les mots les plus rares, les termes savants, les citations latines, les rubriques de journaux, les titres de films, les noms d'acteurs, massacraient le bon sens, blessaient la raison innocente. Raynard flaira au premier abord qu'il s'agissait d'une escrime où l'honneur exige une victoire complète sur l'adversaire. Le salon se transforma aussitôt en une véritable arène où s'affrontaient des gladiateurs bouffons dans le vent des phrases creuses. Un combat de coqs armés d'éperons postiches. L'inconvénient pour Raynard, c'est qu'il n'était pas spectateur. Il se débattait au centre de l'amphithéâtre. Une ampoule de 100 watts au-dessus de son crâne. Il suait. La sueur ruisselait sur ses tempes en filets rapides. Naturellement, le Vietnam venait en tête de liste. La dévaluation de la livre sterling plaçait la Grande Bretagne dans une position délicate et par ricochet donnait lieu à des analyses débiles sur les méfaits de l'inflation et la fragilité du dollar américain. Les pays du tiers-monde devaient miser sur l'hostilité des deux blocs en présence et jongler entre le capitalisme et le socialisme. Une troisième voie s'ouvrait ainsi comme un nouveau canal appelé à relier les camps extrêmes et à concilier les idéologies du vingtième siècle. Le docteur Christian

Barnard en Afrique du Sud avait réussi une sensationnelle transplantation cardiaque. Les fusées russes et américaines touchaient le sol lunaire. La bataille verbale faisait rage entre Raynard et le père de Solange. Les attaques et les esquives se multipliaient. Raynard suait. La sueur perlait en gouttes fines sur son front. Il s'épongeait le visage élégamment en se regardant dans le miroir.

Rosie était revenue avec un plateau sur lequel reposaient trois petits verres de cocktail. Raynard fut servi le premier. Il se mit aussitôt à siroter le liquide rose parfumé, affectant de se délecter à sa saveur, alors qu'il eût préféré un bon verre de rhum. Il toléra courageusement cette boisson trop sucrée qui était un supplice pour sa grande gueule accoutumée à l'éthylisme. Il prolongea outre mesure le temps nécessaire à vider son verre. Il lui fallait profiter de la pause inattendue. Il savait très bien les modalités de l'affrontement, les détours, les pièges, l'itinéraire infernal de cette aventure intellectuellement épuisante. Et jusqu'où cela devait conduire. Les assauts se répéteraient plus violents. Les questions-clés n'étaient pas encore abordées. Mais à tout prix il faudra qu'il en sorte victorieux, ou tout au moins arracher un score nul. Il pressentait que les coups pleuvraient drus contre lui. Malgré une demi-heure de dialogue, la mine de son adversaire ne le rassurait guère. Aussi n'osa-t-il demander aucune nouvelle de Solange. Il faut se montrer bon joueur, cacher ses faiblesses, faire confiance à son armure, se dit-il intérieurement. Il est déjà sur le ring. Il doit relever le défi. Brusquement le silence fut rompu par le gong de la reprise. L'ennemi le harcela de questions à la fois pertinentes et adroites. Acculé tantôt sur la corde raide, tantôt à un angle fermé, sur une diagonale sans issue, Raynard résolut de répondre coup pour coup, quitte à violer toutes les normes du combat, toutes les règles de la chevalerie. Il ne devra pas capituler. Ça, jamais. Il faudra qu'il vainque. Le père de Solange déposa son verre vide et se rapprocha de son interlocuteur.

— Monsieur Raynard, j'ai appris que vous étudiez le Droit et les Sciences Économiques.

— Oui. Je fais la troisième année.

— Vous devez avoir beaucoup de travail, en sus de vos activités quotidiennes?

— Le labeur nous déborde, nous éreinte. Une surcharge de tâches. Du reste, c'est ça la vie. Le repos ne vient qu'avec la mort.

— Tout compte fait, c'est préférable. On doit préparer son avenir quand on est jeune, je crois. Vous travaillez toute la journée, monsieur Raynard ?

— Non. Seulement dans la matinée. J'enseigne les sciences sociales dans un lycée. Et je dispense des cours de littérature dans plusieurs collèges.

— Après avoir bouclé vos études universitaires, vous comptez rester dans le pays ?

— Oh ! Non. J'ai intention de me rendre au Canada où je suis certain d'obtenir un contrat de travail. Un ami de là-bas mène les premières démarches; il m'assure que je pourrai facilement gagner deux mille dollars le mois.

— Quant à cela, je suis d'accord. Je vous encourage en ce sens.

Raynand eut alors la certitude d'avoir gagné la partie en déchargeant tout un sac de fausses monnaies et de mensonges sur l'adversaire. Il eut une sensation de gêne, une sorte de honte. Il était dégonflé en face de lui-même. Il avait vaincu avec des armes interdites. Un combat sans gloire. Une fausse victoire. Un affrontement de clowns dans un cirque d'où l'on sort désabusé. La sueur aux tempes. Le crâne sous une ampoule chauffante et aveuglante d'une centaine de watts.

Brusquement il se leva pour partir. Il avait envie de rire à gorge déployée. De rire jusqu'à l'épuisement, jusqu'à ce que son souffle soit coupé. De crier. De hurler. D'exploser. D'éclater en mille petits morceaux de chair. De devenir une éclaboussure étoilée de sang, une masse aplatie, broyée sous la chenille d'un tank. Il tendit la main à ses hôtes et les pria de transmettre ses hommages à Solange. Celle-ci était à l'étage. Elle descendit l'escalier à pas légers, entra au salon et, visiblement intimidée, salua son ami qui fut ensuite reconduit jusqu'à la petite barrière verte en fer forgé.

Raynand marcha d'une allure précipitée. Il voulait voir quelqu'un des sa connaissance, sans perdre une minute. Il voulait parler à quelqu'un d'intime. Dire la vérité. Se débarrasser de la camisole infecte et aliénante qui pesait sur ses épaules. Se décrotter de la boue de l'imposture. Il accéléra ses pas. Il eut presque envie de courir. Il fumait en se mordillant les lèvres, chaque fois qu'il tirait sur la cigarette. Oui, dire la vérité. Parler à un ami. Clamer à chaque coin de rue que je ne suis ni étudiant, ni professeur de quoi que ce soit et que je n'ai aucun voyage en vue. Mais ce sont eux qui ont voulu de tous ces mensonges. Leur aurais-je avoué que je suis en perpétuel chômage, ils ne m'eussent accordé aucune attention, aucune audience. Ils ont bien souri quand je leur ai parlé de mon projet de voyage et des deux mille dollars que je toucherais au Canada. Le vieux naïf a remué sa moustache et m'a regardé de travers, l'air satisfait.

Lorsque Raynand arriva dans les parages de sa maison, il entra en trombe chez un voisin, un ami d'enfance.

Là, il éclata de rire au grand ahurissement des gens qui ne comprenaient absolument rien de son comportement bizarre. Il riait comme un fou. Il se tint le ventre. Déboucla sa ceinture. Se jeta sur un petit lit en fer. Roula sur le matelas. Tomba à terre.

Raynand se releva et continua de rire. Il réveilla de leur sommeil les gosses déjà couchés. Personne ne put interpréter ce rire prolongé, entrecoupé de ricanements. Quelques minutes plus tard, le rire varia étrangement dans une alternance de soupirs brefs et de saccades gutturales. Sa poitrine se convulsait. C'était comme s'il étouffait dans un habit de cosmonaute. Ou plutôt dans un scaphandre en acier. Il s'asphyxiait dans un espace plein de pieuvres qui resserraient leur étreinte autour de son buste. Ses poumons étaient pris dans un étau de fer. Il se mit à sangloter et pleura comme un enfant, sans qu'il ait jamais eu l'occasion, ni le courage de raconter à personne comment il venait de découvrir, par une expérience douloureuse, qu'il avait le cerveau malade, le coeur instable et l'esprit dérangé par de graves aliénations frisant la schizophrénie.